

■ 주요 뉴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하회 향후 금리 경로 영향은 제한적

- 미국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조만간 지명할 방침. 신속한 추가 금리인하 필요
- 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상당 기간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영란은행, 금리 0.25%p 인하. 향후 추가 인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1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예상치 하회 등이 영향

주가 상승[+0.8%],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일부 기업의 양호한 실적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및 영란은행 금리인하 영향 등으로 1.0%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11월 소비자물가의 신뢰성 문제 부각되면서 소폭 상승으로 전환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 가치는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사카고 연은 총재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 발언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종가 1473.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5.5원, 0.19% 하락). 한국 CDS 강보합

주요지수					주요금리				
		12/18일	12/17일	전일대비			12/18일	12/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774.8	6,721.4	+0.79%	국채금리 10y	미국	4.12%	4.15%	-3bp
	유럽	585.35	579.79	+0.96%		독일	2.85%	2.86%	-1bp
	중국	3,876.4	3,870.3	+0.16%		영국	4.48%	4.48%	+1bp
	일본	49,002	49,512	-1.03%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3,994.5	4,056.4	-1.53%		중국	44bp	43bp	+1bp
환율	달러지수	98.44	98.37	+0.07%	위험지표	EMBI+	-	272	-
	유로화	1.1722	1.1741	-0.16%		VIX	16.87	17.62	-4.26%
	엔화	155.55	155.69	+0.09%		WTI유	56.15	55.94	+0.38%
	위안화	7.0413	7.0440	+0.04%	원자재	구리	535.7	536.4	-0.12%
	원화	1,478.3	1,479.8	+0.10%		금	4,332.6	4,338.3	-0.1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하회. 향후 금리 경로 영향은 제한적

-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2.7% 올라 전월(3.0%) 및 예상치(3.1%) 대비 낮은 수준. 근원 CPI 역시 전년동월비 2.6% 올라 전월(3.0%) 및 예상치(3.0%) 하회. 근원 CPI의 상승률은 '21년 초 이후 최저. 10월 CPI는 섯다운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로 산출되지 않은 상황
- 세부항목 가운데 신차(0.6%), 의복(0.2%) 등은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특히 주거비(3.0%)의 경우 4년여 만에 최저. 다만, 당국에서는 섯다운 영향으로 세부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연은 골드스비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언급
- 시장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일부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11월 CPI 결과가 연준으로 하여금 좀 더 강력한 완화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평가.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기대한다면, 내년 1월 금리인하를 시도한다면, 많은 질문이 쏟아질 수 있다면서 기존의 금리 경로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Principal Asset Management)
- 현재 연준에서는 상당수의 위원들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면서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 CME의 FedWatch는 내년 2회의 금리인하(3월 및 7월, 각 0.25%p)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월 금리인하 가능성(24.4%)은 매우 낮다고 제시
- 한편, 12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22.4만건으로 전주 대비 1.3만건 감소. 이번 결과는 12월 노동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임을 시사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조만간 지명할 방침. 신속한 추가 금리인하 필요

-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월러 이사 등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언급하고, 현재 최종 후보 3~4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 앞으로 몇 주 안에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 특히 차기 의장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바란다고 강조

■ Bloomberg Economics, 만일의 경우 비트코인 가격 1만 달러까지 급락할 우려

- 마이크 맥글론 스트래티지스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언급. 특히 최근 비트코인은 1929년 대공황 당시의 주가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

■ 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상당 기간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ECB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수신금리 2.0%, 리파이낸싱금리 2.15%, 한계대출금리 2.4%)하기로 결정. 이는 역내 경제가 미국의 관세, 제조업 부진 등의 어려움을 예상보다 잘 극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향후 지침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발언
- '26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이전보다 상향 조정(1.7%→1.9%)되었고, 이는 당분간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 전문가들은 상당 기간 금리인하 혹은 금리인상의 기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BNP Paribas). 최근 선물시장은 '26년 말 혹은 '27년 초 소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

■ 영란은행, 금리 0.25%p 인하. 향후 추가 인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 금리를 0.25%p 인하(4.00%→3.75%)했으며, 이에 금리는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9명의 위원들 가운데 5명이 찬성했고, 4명은 동결을 주장. 이번 결과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등을 반영. 또한 실업률 상승 등 일부 경기 둔화 신호 등도 감안
- 성명서를 통해 추가적인 통화완화의 속도와 폭은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금리가 점진적인 인하 경로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 시장에서는 내년 2회의 금리인하를 예상

■ 중국, 희토류 수출업체에 허가증 발급. 이전보다 희토류 공급 용이해질 전망

- 주요 언론은 당국이 일부 희토류 업체에 수출 허가증을 발급했으며, 이번 허가증은 이전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보도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9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빅테크의 AI 투자 경쟁, 현금흐름 차별화와 밸류에이션 논쟁 심화 - Financial Times

(Two views of AI and Big Tech)

- 빅테크들은 대체로 AI 투자를 확대하지만 강도는 상이. Microsoft는 4년 전 대비 2배 늘린 반면, Oracle은 11배 확대. 이에 Microsoft 등은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거나, Oracle은 악화. 점차 AI 투자 규모보다 현금창출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빅테크가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에서 대규모 물리적 자산이 필요한 형태로 바뀌면서 감가상각 등 산업적 요소가 중요. 또한 고평가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
- 반면 AI 투자를 핵심 사업을 보호·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 결국 관건은 막대한 자본지출이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이며, 장기화될수록 '가상 사업' 모델로서 빅테크에 대한 고평가를 용인하기는 점차 어려워질 전망

■ AI 산업, 증시와 중국 정책 등에서 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이 확산 - 블룸버그

(Another Big Shift in the AI Vibes)

- 최근 AI 시장에서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 지나친 낙관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 등에 관심. 이에 AI 경쟁에서의 승자와 패자가 중요해졌으며, 이는 기업별 주가 차별화로 연결. 실제로 올해 초 영국 10대 AI 기업 중 하나로 거론된 플랫폼 기업 RobinAI가 몰락하며 파산 위기에 직면
- 아울러, 최근 중국 시진핑의 현실을 무시한, 유행에 따른 공격적 자원 배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People's Daily). 이는 AI 산업에 대한 맹목적 투자에 대한 우려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과 AI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례적 현상

■ '26년 미국 증시, 낙관적 전망 속 과도한 AI 기대고평가 등 5가지 위험 내포 - 블룸버그

(There's a Long List of Risks Hanging Over Stocks for 2026)

- 내년 미국 증시는 AI 기업 실적 호조, 금리인하 기대, 관세 우려 감소, 견고한 경제 성장 견해 등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도 내재. 첫째, AI 도입 지연과 경쟁 심화에 따른 기업 실적 전망 하향 가능성
- 둘째, 그동안 지수를 견인한 빅테크 관련 고평가 불안 증폭되면 역풍으로 작용할 소지. 셋째, AI 투자와 관세 여파로 물가상승 및 금융긴축 압력 높아질 가능성. 넷째, 관세 문제 재부상과 지정학적 위험(美中 갈등, 공급망 차질 등) 재차 발생하면 위험 회피 성향 강화. 다섯째, 경제 성장 전망이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 가계 재정 및 은행 신용 위험 부각될 우려

■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섀다운 영향 등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 - Financial Times**

(Economists warn of flaws in US inflation report)

-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7% 올라 예상치 하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에서의 오류 존재 가능성 제기. 일례로 데이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국은 일부 항목(특히 주거비)에 9월 수치를 10월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지수를 산출. 이에 일부에서는 실제 물가 흐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
- 시장에서도 이번 결과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이전의 수치들과 비교할 경우 잘 조화되지 못한다고 지적(KPMG). 이에 채권시장에서는 단기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 후 반등하는 등 관련 영향을 대체로 무시하는 분위기. 이 외에도 조사 재개 시기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으며, 이는 많은 할인 행사 등으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 **미국 중소기업, 트럼프 관세 등으로 파산 및 대출 연체율 증가 우려 고조 - 블룸버그**

(Fear Is Consuming US Small Businesses Pummeled by Trump Tariffs)

■ **미국, 경쟁력 회복을 위해 중국식 장기 전략 참고할 필요 - 블룸버그**

(Want to make America great again? Try copying China)

■ **기업의 AI 도입 경쟁, 업무 효율성 개선 기대 등으로 본격화 - Financial Times**

(The AI adoption race in the workplace is on)

■ **'26년 금 가격, 중앙은행의 매입 지속·달러화 약세 등으로 추가 상승 전망 - Reuters**

(Gold forecast to glitter again next year despite biggest gain since 1979)

■ **비트코인 가격, 옵션 만기 전 미결제 증가 등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시사 - 블룸버그**

(Bitcoin Volatility Rises Ahead of \$23 Billion Options Expiration)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